

선한일, 선한사업

박종승 목사

(평택 호스피스 대표, 한국호스피스협회 경기남부지회장)

희망은 실천의 자비요, 미의 실천은 선행이라고 M.D 우나모는 말합니다. "이름 모를 착한 일을 해 놓은 일은 땅속에 숨어 흐르며, 남몰래 땅을 푸르게 해주는 수땃과도 같다." 칼라일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선한일, 선한사업이 있을 때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다시 한 번 "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부패의 요인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로써 자기 손해를 참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프론티어 정신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자원봉사의 정신입니다.

선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탄생초기부터 교회 안팎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기 재산과 전답을 바치며 교회가 행하는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듯이 교회가 건전할 때 부흥할 때 언제나 선한사업에 앞장서서 세상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할 때 세상을 향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 하는 바 선한 인생이란, 행복한 인생이다. 당신이 선하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다면 선할 것이라는 뜻이다" B, 러셀의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하고 천하고 소외된 말기 암 환자들.....

그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자들이야 말로 이별을 극복하고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생명의 사역이라 믿습니다. 더 성숙한 사역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 봅니다. - 샬 롬 -